

민선 8기 단체장에 듣는다

# “따뜻한 광양,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구현”

## 정인화 광양시장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을 구현하겠습니다.”

민선 8기 새로운 광양시대를 시작하는 정인화 광양시장은 13일 광주일보와의 대담에서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 실천, 시민의 후생과 복지를 담보하는 지역경제 부흥, 돌아오는 농촌 청년이 깃드는 광양,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눈물 없는 사회’, 청년의 꿈이 영글어가는 청년친화도시, 품격 높은 도시, 활력 넘치는 도시 건설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체육을 진흥시키고, 범죄·사고·재해·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그는 이어 “광양시민이라는 그 자체가 자량이 되고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 시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 민선 8기 슬로건으로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정했는데 의미는.

▲ 지난 달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민과 인수위원회, 그리고 공직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민선 8기의 슬로건을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으로

## 포스코 이차전지·수소산업 등 미래 신성장 투자 확대 문화·예술·체육 진흥시키고 범죄·재해없는 도시 건설

결정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감동시대를 만들고, 시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 주신만큼 새로운 광양시대를 향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광양’을 목표로 가슴 뭉클한 감동을 드리는 따뜻한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

- 긴급한 현안사업을 꼽는다면.

▲ 지금 경제(국가경제, 광양경제)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때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우리 시가 발전하는 데 기업이 기여를 해 왔고, 경제·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지역 기업에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과 우호적이고 협력적이면서도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광양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포스코 그룹의 이차전지와 수소산업 등 미래 신성장 사업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 민선7기에 추진했던 보육사업 등은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주택개발사업은 기존에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예정된 사업은 추진하되 앞으로 주택보급은 수요에 맞춰서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칭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는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어린이테마파크 하나만으로는 안되고 연계된 다른 관광개발이 수반되어야 상생효과를 볼 것이라고 본다.

-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이 비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우리 광양은 그 어느 도시보다 미래에 희망이 있는 곳이다.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젊고 역동적인 도시다. 지속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의미하며 글로벌은 국제적인 표준도시 지향, 도시성장의 미래비전 제시, 일류 보편의 가치를 둔 국제적인 협약·표준, 예를 들어 탄소중립의 가치를 선제적으로 수용하고 구현하는 일류 보편 타당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시의 미래상을 표현한 시정목표인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은 지속 가능



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 추구를 조화하고 균형을 통해 현재는 물론 미래에 더욱 가치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글로벌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무소속 신인으로 시장에 당선됐다. 시정을 위

해 정당 입당 등 정치인으로서 계획은.

▲이제 시민들은 과거와 달리 정당이나 지역·학연보다는 후보자의 공약과 능력을 꼼꼼하게 평가해 시장을 선택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광양발전을 위해 일을 잘 할 수 있는 준비된 시장, 정직하고 청렴한 시장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을 느꼈다.

지방정치는 생활행정이자 생활정치다. 정당 입당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문제로 오로지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약속 드린 정책을 잘 실천하고 지역의 곳곳을 가슴과 발로 직접 뛰면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겠다.

-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시장이 되겠다. 광양의 미래를 위해 항상 공부하고 고민하는 시장이 되겠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은 가장 큰 동력이며 에너지이다. 저에게 광양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막중한 책임을 주신 만큼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음을 느낄 수 있도록, 광양시민이라는 그 자체가 자량이 되고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사진=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의대 설립 등 지원 요청

### 전남도, 서울서 민주당 전남도당과 예산정책협의회

전남도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계기로 첨단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다.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주도해야 대한민국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서다.

민선 8기 핵심 현안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비 확보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남도는 13일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 현안과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승남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주철현·김희재·소병철·신정훈·이개호·윤재갑·서삼석 국회의원(지역구 순)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특히 최근 급락하고 있는 쌀값 안정 및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남 현안 해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국

립의과대학 설립 등 10건의 정책 지원과 혁신공향과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 등 45개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시의적절하게 쌀 수급 및 쌀값 안정대책 촉구와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공동건의문을 채택, 도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며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 풍력발전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 특별법 제정 등 지역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대표적 정책 지원 사업으로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지원 ▲전남도 국립의과대 설립 ▲풍력발전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 특별법 제정 ▲조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호남권 SOC 조기 확충 ▲지방도·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 ▲지방소멸대응 기금 확대 ▲농·수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등이 꼽혔다.

반도체 특화단지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수도권·중부권의 반도체 생산시설 집중화를 벗어나 지방에 조성하고 전문인력도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남도 입

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필수의료전문의 부족 등으로 중증·응급환자의 타지역 유출 등 건강형평성이 취약한 지역 실정을 고려해 국립의과대 전남 설립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또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면서 관련 인·허가를 윈스톱으로 전담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전남기구 신설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극적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승남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전남의 발전을 이끌 지역 현안의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 뿐 아니라 지역 현안과 관련한 법령 제·개정 등 입법 활동으로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광주시, 공약·현안 총괄 ‘전략추진단’ 신설

### 민선 8기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광주시가 민선 8기 주요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일단 공약과 주요 현안 총괄·추진을 위해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광주전략추진단’을 신설한다.

5대 미래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산업국을 산업혁신성과, 인공지능정책과, 차세대산업과, 기반산업과, 에너지산업과로 확대 개편한다. 민생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창업 기능 강화를 위해 일자리경제실을 경제창업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제정책과, 창업진흥과, 일자리정책과, 투자산단과, 생명농업과로 기능을 재편한다. 강기정 시장의

공약인 신경제 지도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 신활력총괄관, 관광도시과, 도시공원과, 수변레저조성과를 둔 대형조직인 ‘신활력추진본부’를 신설한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조광역 협력사업과 메가시티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광역협력담당관’을 기획조정실 내에 신설할 계획이다.

조광역 교통체계 구축과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교통건설국을 군공항교통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시민안전실 내에 중대재해 예방, 건설 현장 예방 지도 기능을 뒤 교육·소통·안전 가치를 실현할 방침이다. 조직개편안은 지난 12일 입법예고했으며,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 1일 시행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기업·청년 희망 주는 일자리 연계사업 추진

전남도가 도내 우수기업과 젊은 인재를 연결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 이 사업을 지역 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 기업을 발굴해 청년 일자리와 연계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도내 고교생, 대학생, 일반인 등 청년이 일자리를 찾도록 지역 유망기업 방문이나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을 발굴해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남도와 교육청, 대학이 함께하는 특별전담팀(TF)을 구성했다. 현재 청년·기업 모집과 사업 추진 방향, 출향청년 대상 홍보 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계획이 구체화 되면 오는 9월 우수 기업 모집, 10월 청년 모집 과정을 거쳐 11월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임대 및 특판 안내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임대 안내**

층	호실	임대면적	호별 위치도
1	101호	27평	1층 101, 102, 103
	102호	40평	
	103호	51평	
2	201호	27평	2층 201, 202, 203, 204
	202호	28평	
	203호	43평	
	204호	82평	
3	301호	금남몰라이트치과	3층 301, 302, 303
	302호	72평	
	303호	83평	
4	401호	103평	4층 401, 402, 403
	402호	72평	
	403호	83평	
5	501호	MG 문화센터 (갤러리 대관 환영)	5층
	502호	MG 골프클럽 (회원 대 모집)	

**사옥개관기념 무공무진 특판**

**3%** 정기에탁금 (1년) (300억원 한도)

**MG골프클럽 특가**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조건 문의 (영업지원팀)  
\* 탁기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할인 금액 2만원)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